

## 중기부, 11개 산하기관과 836개 음식점에 2억 5000만 원 선결제

김정진 기자 | 승인 2020.04.30 14:41

[테크월드=김정진 기자]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고 있는 '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'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.

선결제 캠페인에 국민·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며, 영화 배우 안성기·유준상에 이어 개그맨 조문식 등 연예인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고, 공무원 노조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서도 선결제 참여확산을 촉진하고 있다.



### 중소벤처기업부

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로서 정부부처 최초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제방법 및 이용방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836개 식당에 약 2억5,000만원의 선결제를 완료했다.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기술보증기금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창업진흥원, (재)중소기업연구원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한국벤처투자(주), (주)중소기업유통센터, (주)공영홈쇼핑,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참여했다.

박영선 장관은 "선결제가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경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,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하겠다"라고 밝혔다.

저작권자 © 테크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정진 기자